

경남도민 오찬간담회

경남은 좋은 입지와 인력을 갖춘 곳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혁규 지사께서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김혁규 지사가 여러 가지 하셨지만 여러분의 박수를 유도하고 힘이 들어가고 따뜻해지고 해서 저도 기분이 따뜻해집니다. 보통사람들은 외지로 나가는 것이 꿈입니다. 외지에 나가면 성공하고, 성공해서 정치 한번 해보려면 고향을 찾습니다. 정치입지를 굳히고 하는데 저는 어찌하다보니 고향에 살다가 정치를 시작하고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때는 고향에 돌아오면 다소 설렁하고 시선도 따뜻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참 괴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재미 못 봤고 인간적으로도 고통이 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우려 해도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것은 고향입니다. 대통령하면서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전국적으로도 어렵고 과연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은퇴하면 고향에 돌아오는 것이 최대의 꿈입니다. 성공을 해야 하는데 성공 못하면 고향에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꼭 돌아오고 싶습니다. 제가 잘해야 성공도 하고 고향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해도 여러분이 힘껏 도와주면 성공할 수 있고 고향에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경남에서 대통령이 나왔으니 뭔가 있겠지 하는 기대감을 은근히 갖고 있는 줄 압니다. 나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지사께서 압축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남은 복 받은 곳입니다. 부산, 울산이 떨어져 나갈 때 여러분이 상심과 걱정을 많았을 것입니다. 위축되지 않고 잘 발전해왔습니다. 경남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잘 엮어 낼 수 있는 지도자가 많이 있습니다. 김 지사가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는데 잘 꿰시는 것 같습니다. 중앙 정부가 자원을 배분할 때 명분 없이 떼 줄 수 없습니다. 전국의 국회의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는 것을 만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좋아도 사업을 잘 엮어내는 지도자가 없고 민심이 모아지지 않으면 사업을 잘 만들 수 없습니다. 경남은 좋은 조건이고 좋은 일군이 함께 있습니다.

도장 찍는 사람들이 트집 잡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트집 잡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도 일이 돌아가기 힘듭니다. 트집 잡으려고 하면 하겠지만 눈감고 보면 예뻐 보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도장찍어주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집안은 유능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1, 2년 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남은 잘될 것입니다. 2010년까지 2만 달러 시대로 목표를 잡았는데 경제가 발전하면 돈 가치가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면 조금 당겨질 수 있습니다. 경남도가 2008년이나 9년까지 2만 달러로 가야 다른 도도 2010년까지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앞당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